

인물을 통해 보는 시가서

◆욥기서

주요 등장 인물 : 욥, 욥의 아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과 세 친구들

욥 : 팔레스타인 남동쪽 에돔 지방의 우스 출신 욥 1:1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욥 1:1).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인정받은 자였다(욥 1:8). 아라비아 우스에 사는 의인으로 큰 재산가요 자녀가 많은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였다(욥1:1).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자신의 몸에는 창질이 나고 세 친구로부터 여러가지 유혹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다

(욥1:8-22, 4:1, 8:1, 11:1<7:4-16, 42:6).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가? 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낙심하지 않고 유혹 받지 않는 것? 스스로 위로 받고 끝까지 인내한 것?

그러나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약5:11)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초점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욥을 상황 까지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은 구원의 초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자비와 긍휼은 욥이 초라해 보여서, 또는 안타까워서라는 말이 아니다. 자비와 긍휼은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다.

엘리바스 : 욥의 친구로 데만 사람이다(욥 2:11; 4:1; 15:1; 22:1). 욥의 세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였던(욥 42:7) 그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욥 4:7). 또 욥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욥 4:12-21; 15장; 22장)

그래서 그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직언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 많이 의존하며 마치 신학자와도 같은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서 가장 사려가 깊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의 이름 만큼이나 오직 악인들만이 고난을 당한다는 신념으로 욥의 고난 역시도 곧 그의 죄를 의미한다고 단정하며 세 개의 긴 담론을 남깁니다(4-5장, 15장, 22장).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22:4-5).

빌닷 :아브라함의 아들인 수아의 자손일 것으로 여겨진다(창 25:2; 대상 1:32). 욥기 8장과 18장, 25장에서 빌닷은 욥이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난당한다며 그를 책망했다. 후에 빌닷은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으며(욥 42:7), 욥의 중보기도로 용서받았다(욥 42:8-10).

빌닷은 엘리바스에 이어 두 번째로 욥에게 말한 친구입니다. 그는 수아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수아의 후손인 듯한데(창 25:2), 그도 역시 세 개의 긴 담론으

로(8장, 18장, 25장) 욥에게 충고합니다. 빌닷은 주로 전통과 역사에 근거해 말하지만 내용은 거의 엘리바스의 주장과 동일한데 그 어조는 엘리바스보다도 더 강경합니다.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따라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너의 이 모든 고통을 면케하실 것이라>는 논조입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논쟁의 하나님>이란 뜻의 그의 이름만큼이나 논쟁적입니다.

소발 : 소발은 고난 당하는 욥을 찾아가 욥은 그의 죄로 인해 그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고난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하며(욥 11; 20장) 욥에게 죄를 버리라고 충고하였다.

그는 욥의 재난은 욥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주장한다. 욥이 크게 번영하다가 졸지에 망한 것은, 그가 사악하여 빈자를 학대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은데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고, 욥을 공박하였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일요 장구치 못함과, 필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하여 모든 불의의 소유물은 그의 생명과 함께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제물(祭物)을 통한 욥의 도고에 의해 그가 사유함을 받을 것을 명하셨다(욥 2:11, 11:1, 20:1, 42:9).

그는 두 개의 담론(11장, 20장)으로 욥을 충고하는데 추측에 많이 의존하며 때로는 무례하고 짜증스러워하며 통명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타협할 줄을 모르는 원리주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욥을 향해 <너는 죄를 짓고 있다.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네 생명이 단축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을 매우 무자비한 분으로 이해하는 듯하며 그의 이름이 <거칠다>는 뜻이어서 그런지 그의 논조는 처음부터 몹시 강경하고 과격합니다

욥의 중심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욥기서의 기록 목적 :

그들의 그 순수한 우정과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결국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한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욥의 고난이 허락된 고난이라면 예수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허락된 구원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욥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편(18편을 중심으로)

주요 등장 인물 : 다윗, 솔로몬

다윗 : 이스라엘 제 2대의 왕(재위 BC 1060-1021, 1010- 971)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다 지파 이새의 막내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바로 직전에도 다윗에게는 블레셋에서 내려온 네명의 거인들과의 무시무시한 전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고비와 위기의 순간들 앞에서 다윗이 강한 믿음을 가진 용맹한 용사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거뜰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다가오는 전투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

든 일을 척척 손쉽게 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 순간이 절대절명의 순간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4-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위기의 순간이 죽음의 덫이 드리워진 순간이었고 사망의 밧줄이 자신을 칭칭 휘어 감는 순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경험하는 고비의 순간들이 그저 쉽게 지나가는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흑암"(28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46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사울 :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왕.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자신이 자결하여 죽게 됨.

다윗의 중심 :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함.

시편의 기록 목적 :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자의 하나님이었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다윗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연약했고 아무 쓸로 없는 자리에서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닌 그의 믿음이었던 것을 알게 된다. 그럴 때 시가서는 다윗뿐 아니라 솔로몬 시가서의 많은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사건인 것이다. 이것은 오직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역인 것이다.

◆잠언, 전도서(잠언 9장, 전도서 3장을 중심으로)

주요 등장 인물 : 솔로몬

솔로몬 :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성전건축을 시행한자.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 많은 사람은 잠언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로 오해한다. 지혜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마치 지혜가 총만한 왕으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이며 그 지혜를 주신이가 누구인가? 사람들은 역시 겉으로 드러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선호한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사람이 결코 생각지 않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반대의 것들을 선호하신다. 물론 반대의 것이란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구별된 것,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제물을 받으신다. 거룩한 제물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다. 사람은 믿음을 싫어한다.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좋아하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감춰져 있는 믿음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혈땅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꺼내듯이 주님은 전혀 우리가 생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남들이 생각지 않는곳, 전혀 그러지 않을 곳, 아무리 생각해도 보물이 나오지 않을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아주 귀한 보물을 감춰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그리스도이시다.

잠언서는 이와 같은 점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그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 특히 구원의 지혜인 것이다. 구원의 지혜는 믿음으로 출발한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의 지혜로 나아갈 수 없다. 믿음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그리스도이기에 이 사실에서 출발할때에 잠언서를 바로 읽는 것이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 사람들은 만족을 찾아 헤메고 있다. 성공과 출세, 돈, 명예, 부자 등 자신에게 만족이 될 만한 것을 위해 열심히 찾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가? 먼저 전도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 뿐인 것을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왜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성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에 결코 이 세상에서는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를 주실 수 있는 구원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예수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말로만이 예수그리스도께서 만족이 아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성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땅에서 만족을 줄 수 없는 불평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힘들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낙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이 땅에서 낙심할 수 없겠나? 그러나 놀랍게도 내 영은 진정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기에 기쁨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전도서의 내용은 헛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히 헛되지 않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절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다윗의 중심 :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그 믿음의 삶.

솔로몬의 중심 :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기 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만민에게 구원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잠언서의 기록 목적 : 잠언서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며 그 믿음의 지혜의 삶을 살도록 기록하고 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 : 전도서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만족을 줄만한 것들 어느 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그리스도 한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구원자이심을 기록하고 있다.

◆아가(4장을 중심으로)

등장인물 : 솔람이 여인

신랑 :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신부 : 신랑을 위해 단장해야 할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다.

아가서의 기록 목적 : 아가서는 한 여인의 절실한 사랑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신랑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갈망이 결국 구원이 이르게 하는 지혜임을 기록하고 있다.

주의사항 : 아가서는 절대로 인간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것으로 인해 이단 주의 사상이 발생한 적도 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기록하고

있지 인간주의 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할 때에 그것이 옳다고 사람들이 할지언정 주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노!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왜냐면 아가서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여 버리면 인간의 음란으로 변질되고 퇴색되고 만다는 것이다. 아가서는 상징적인 면이 매우 강하다. 이 사실에 메시아적 의미, 즉 신랑이신 예수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가서를 풀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속에 아가서를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아가서를 읽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 : 시가서는 인물이 중심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단지 인물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뿐이다. 인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 메시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인도시는 것을 시가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참 메시아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훗날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하는 영광만이 드러날 것이다.